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8.12.(월) 조간
배포
2024.8.9.(금)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장 김형순 (02-3145-7050)

담당자
팀장 박진호 (02-3145-7060)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잠정)

◆ **OO은행은 '20.4.3.~'24.1.16. 기간 중 당해 은행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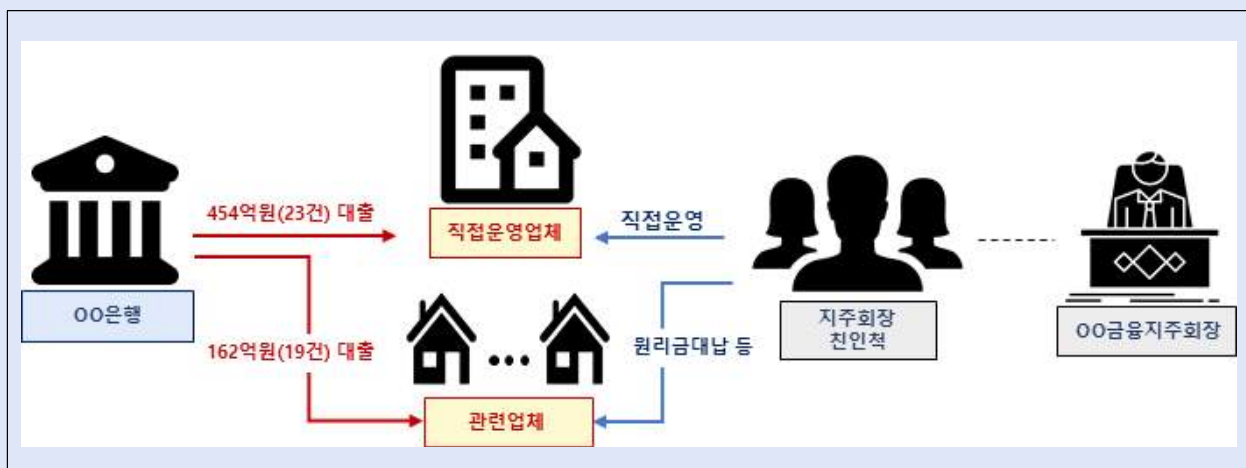
* 해당 친인척이 회사의 前·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23건),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동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19건)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1)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

2) '24.7.19.기준,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중**

◆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

<사건 구조도>



I. 검사결과 주요내용

-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당해 은행이 '20.4.3.~'24.1.16. 기간 중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 해당 친인척이 前·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대출건중 다수는 지역본부장甲의 주도로 취급되었고, 동 본부장은 既면직되었음

※ 동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4.5억원)에 불과

- 한편,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24.7.19.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I. 부적정취급 관련 세부내용

-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존재

- ①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추가 실행**

✓ **[참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B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목적 대출** 과정에서도,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 ② **C법인 대상 30억원 규모의 '거래처 대금지급 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해당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비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미확인**

* 차주사가 제출한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 동일하였고, 이 중 1건은 차주사가 아닌 타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계산서였으며, 차주사를 대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여부 조회결과 정상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

- **(담보·보증 부적정)**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① **D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용가액이 전무(全無)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

- ② **E법인의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을 인지했음에도, **보증여력이 부족한 대표 이사乙****을 보증인으로 입보했다는 이유로 **3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

* 대출신청서류 상 동 법인의 **소액연체이력 및 보증보험의 대지급이력**이 확인

** 본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

- **(대출심사절차 위반)**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① F법인 대상 직전 실행된 대출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용도외유용)되어 회수조치된 상황에서, 용도외유용 이력이 존재하는 해당 법인 대상 추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본점 승인없이 지점전결로 추가 대출 취급
- ② G법인의 실제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승인이 필요했으나,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전결로 대출을 취급하였고,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 미 실시

□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 용도외유용 점검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H법인 대상 9억원 규모의 '물품구입목적' 대출 관련 용도외유용 점검 과정에서, 물품구입대금의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본래 대출신청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미발견

Ⅲ.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감원은 '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하여,

- 금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